원문은 확인 기준으로, 정제한 데이터는 다음 작업의 기반으로

직접 만든 자료 앱 사유고와 사유고2에서 출발해
아카이브와 책으로 확장한 개인 지식 시스템

이 문서에 나오는 이름
사유고는 제가 AI 코딩 도구로 직접 만든 개인 자료 앱입니다. 책, 논문, 영상 자막, 웹 글 등 모아 둔 자료 1,460건을 페이지 단위로 저장하고, 질문하면 관련 페이지를 원본 이미지와 함께 보여 줍니다.
사유고2는 같은 자료를 한 번 더 정리한 두 번째 앱입니다. 책마다 논점, 주장, 근거, 용어를 뽑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검색 결과에서 원문 위치로 이동합니다.
아카이브는 이 자료를 분야별 사건과 인물로 다시 엮은 경제사, 철학사 등 8개 웹 연대기입니다.
코퍼스는 위 앱들에 모아 둔 자료 전체를 말합니다.

작은 자료 모음에서 시작했습니다. AI와 함께 자료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고, 논점, 주장, 근거로 구조화해 저장했습니다. 화면 뒤에는 그 데이터를 반복해서 찾아 쓰는 검색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정제된 항목에서 질문에 맞는 후보를 고르고 원문으로 돌아가 문맥을 대조합니다. 필요한 원문을 직접 찾는 경로도 유지합니다. 원문을 보관하는 부분과 정리한 데이터를 찾아 다시 쓰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기초

자료 정리

원문 위치를 보존하고
찾아 쓸 단위로 저장

검색 기반

구조화와 색인

주장, 근거, 개념을 정리
대량의 항목에서 후보 탐색

다음 가공

분야별 재정리

사건, 인물, 관계로 구성
다시 검색하고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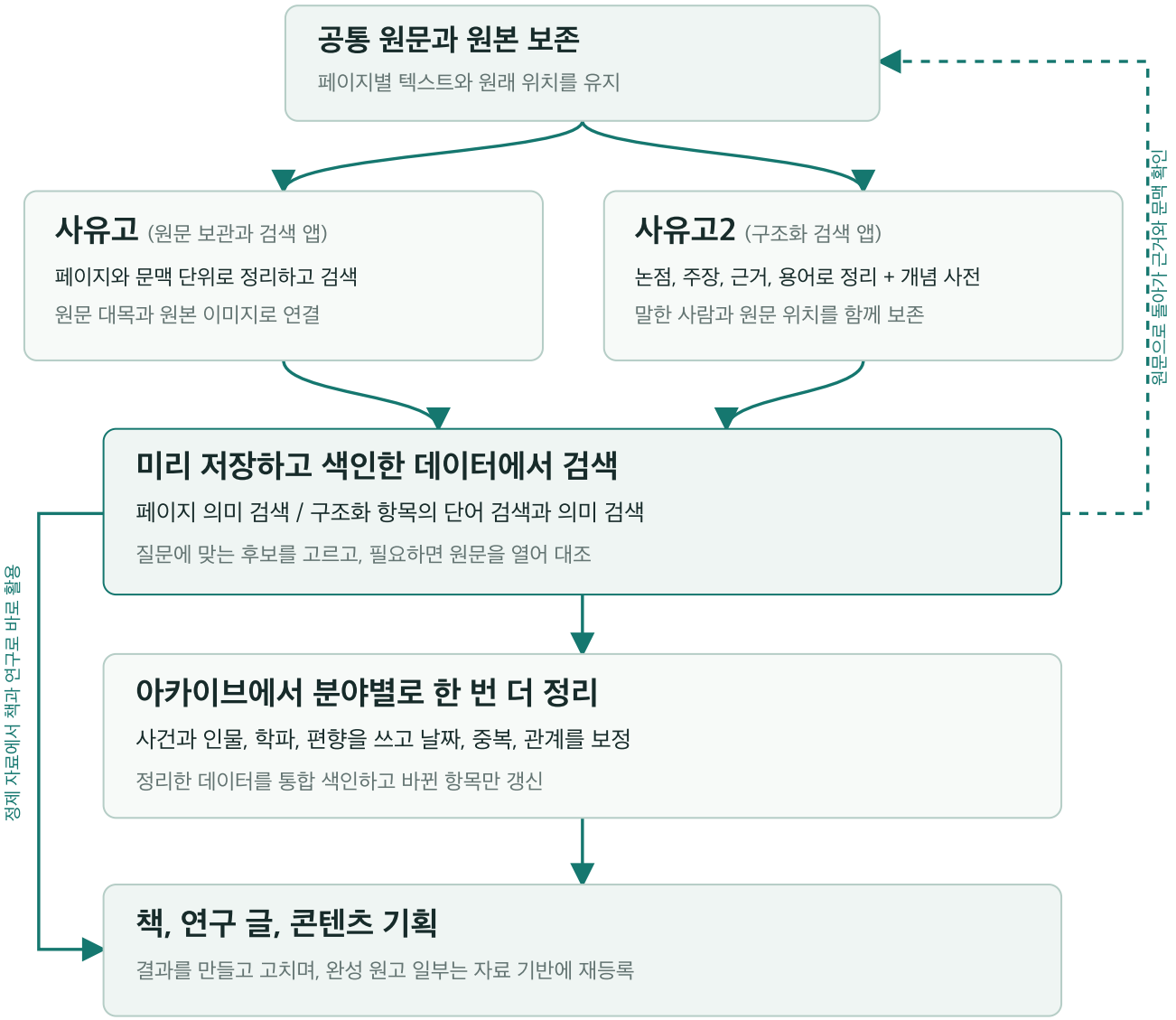
> 아카이브는 이 구조의 결과물이면서,
> 다음 연구와 창작에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다음 쪽부터 구조도, 8개 아카이브, 대표 원고 5종, 원고 보강과 재등록 기록을 실었습니다.

출간한 책은 아직 없습니다. 책은 초고, 퇴고, 전자책 파일 단계로 나눠 적었습니다.

한 번 정리한 자료를 다음 작업에서도 다시 쓰는 구조

사유고(원문 보관과 검색 앱)와 사유고2(구조화 검색 앱)는 같은 원문을 서로 다른 단위로 탐색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유고2 검색 항목 1,182,96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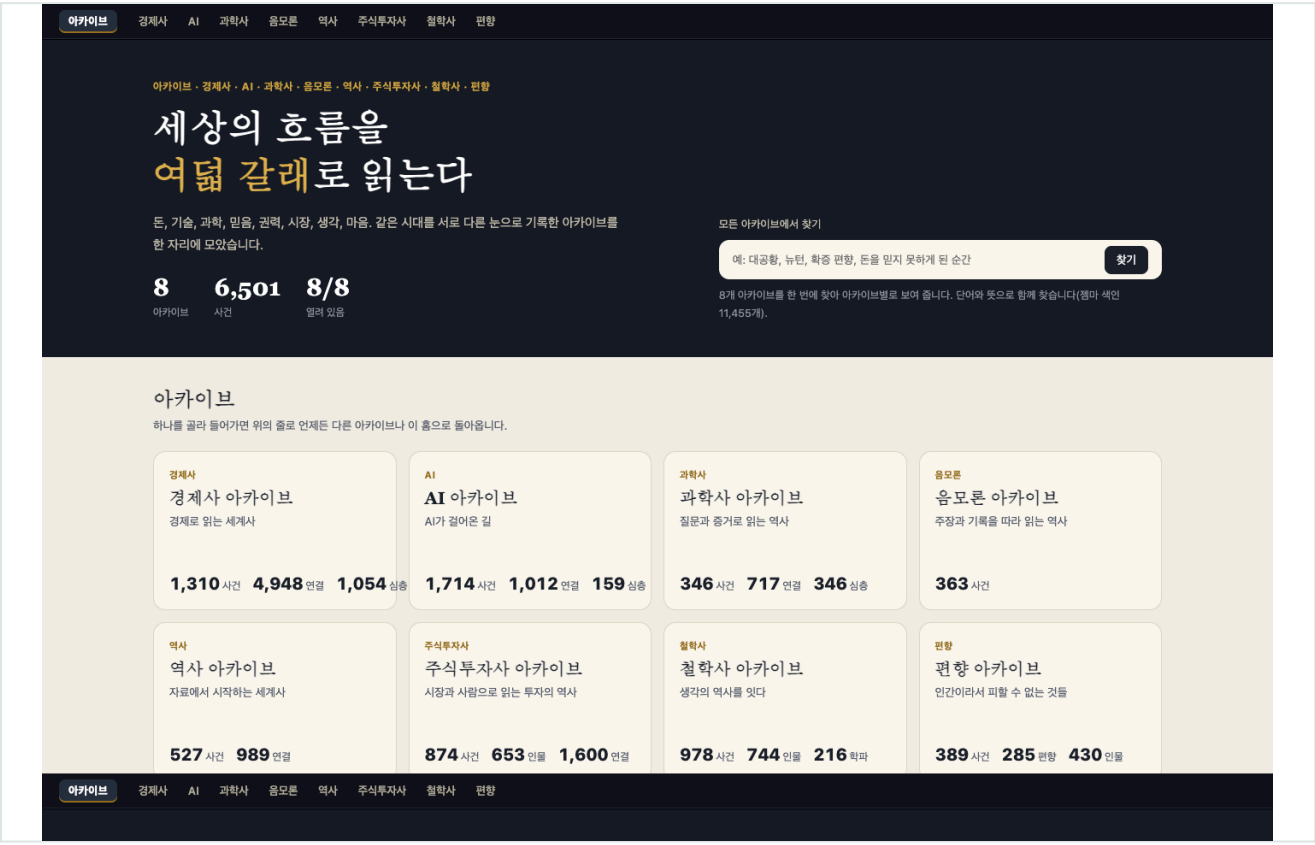
구조 지도 항목 666,699개와 개념 항목 516,265개를 합한 수입니다(2026년 10월 27일).

미리 색인해 둔 검색 항목 수입니다.

두 앱은 각자 검색 기반을 갖고 있고, 사유고에도 자체 구조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같은 공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다시 가공해 여덟 분야의 아카이브로

경제사, AI, 과학사, 음모론, 역사, 주식투자사, 철학사, 편향



8 / 8
운영 중인 아카이브

6,501
분야별 사건 기록 합계

11,455
화면에 표시된 검색 색인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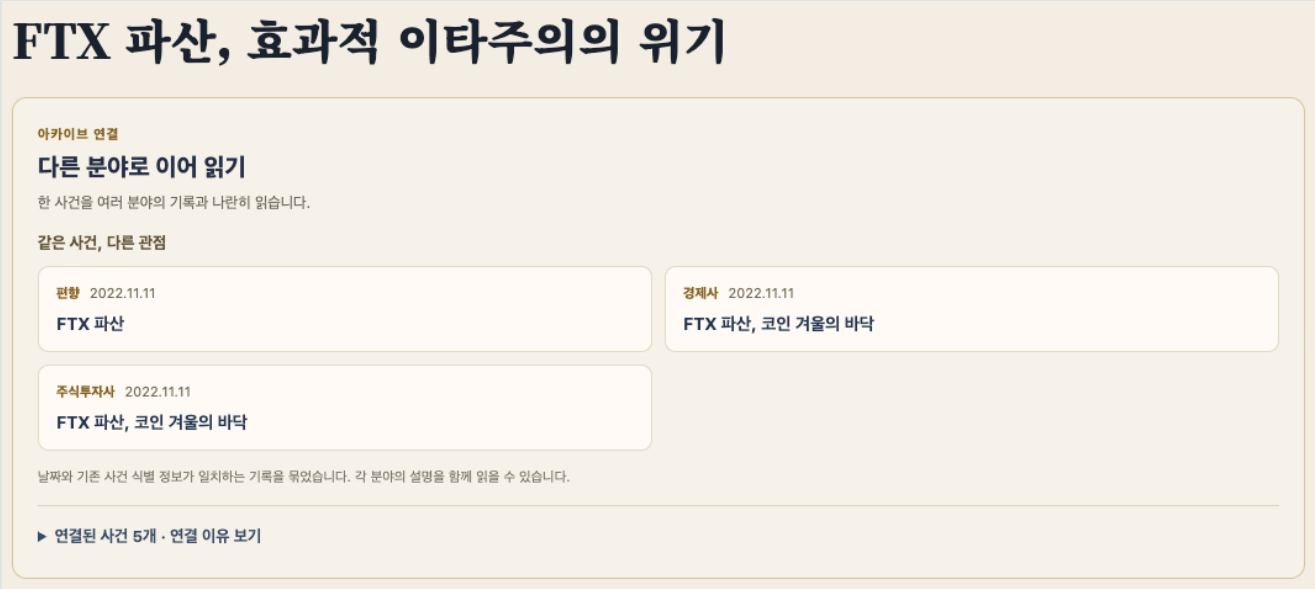
검색 결과를 분야의 데이터로 다시 구성합니다

철학사와 편향 아카이브에서는 필요한 주장과 근거, 원문 구간을 골라 재료 묶음을 만들고, 사건과 인물, 학파, 편향 항목을 쓴 뒤 검토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날짜와 중복, 연결을 바로잡은 결과가 다시 통합검색의 재료가 됩니다.

같은 사건을 여러 아카이브가 함께 다루기도 해서 합계에는 중복이 들어 있습니다.

FTX를 찾으면
시장, 윤리, 판단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통합검색에서 FTX를 찾고 철학사 상세를 연 뒤, 같은 사건의 주식투자사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제사
거래소 파산과 가상자산 시장의 위기

주식투자사
고객 자금과 계열사 투자, 시장에 미친 영향

철학사
효과적 이타주의, 목적과 수단의 문제

편향
유명 투자자와 창업자의 이미지를 믿는 판단

> **정제된 자료와 원문 근거 → 분야별 사건과 관계 구성 → 재색인과 연결 → 다시 탐색**

철학사와 편향의 이 사건에는 개인 도서 자료를 참조한 내부 기록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사 항목에는 별도의 공식 자료 링크와 확인 범위도 남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와 설명을 한 화면에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은 각 아카이브 항목의 관점을 요약했습니다. 분야 사이의 연결은 함께 읽을 기록을 이어 둔 것이고, 인과관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기반에서 나온 다섯 권의 전권 원고

출간한 책은 아직 없고, 권마다 제작 단계를 적었습니다.

닫힌 주사위

보강판, 전자책 파일

장편소설, 52개 집필 단위

초고를 쓴 뒤 코퍼스에서 찾은 근거로 18개 장 29곳을 고쳤습니다. 수정 전후 원고와 보강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철학

전권 퇴고, 전자책 파일

프롤로그, 5부 18장, 에필로그

자료를 검토하고 퇴고한 뒤 EPUB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성본을 개인 자료 기반에 다시 등록했습니다.

구조론적 투자자

전권 초고

프롤로그, 5부 18장, 에필로그, 부록 4개

Word 원고와 읽기용 PDF가 있습니다. 도서 9종과 기업 공시를 검토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보폭

전권 초고

프롤로그, 5부 18장, 에필로그

Word 원고와 읽기용 PDF가 있습니다. 근거와 의미를 고친 판과 표현을 다듬은 판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AI를 만드는 회사들

전권 퇴고 v7

6부, 100개 기업

기업 소개와 주가 이력 원고, 시각자료를 갖춘 HTML 전권입니다. 코퍼스 등록은 이전 v5 판본입니다.

> 두 권은 전자책 파일까지 만들었고, 세 권은 초고나 퇴고 단계입니다.

원고 제목은 현재 작업 제목입니다.

지식을 설명으로 붙이지 않고 인물의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관리자의 목적을 아직 알 수 없다는 설정을 서술하던 대목에, 코퍼스에서 찾은 판단 오류의 설명을 적용했습니다. 인물이 과녁을 그려 보여주는 장면으로 고쳤습니다.

수정 전, 2026.10.17 최종통합본

다음 날 공개할 관계도에도 같은 자리가 비었다. 미해독이라는 표시를 넣어야 제목만 본 사람이 대상을 안 것으로 읽지 않을 것 같았다. 세린이 글자 크기를 맞추는 동안 하진이 물었다.

수정 후, 2026.10.22 코퍼스 보강판

다음 날 공개할 관계도에도 같은 자리가 비었다. 세린은 그 칸에 미해독 표시를 넣고, 아래 여백에 과녁 두 개를 그렸다. 둘 다 구멍이 왼쪽 위로 몰려 있었다. 첫째 과녁에만 한가운데 점이 있었다.

“판정 오류를 설명할 때 쓰는 그림이에요. 앞면에서는 가운데가 보이니까 어느 쪽으로 쏠렸는지 말할 수 있어요. 뒷면에서는 구멍이 어디 모였는지만 보여요. 뭘 노렸는지는 안 보이고요.”

그녀가 둘째 과녁을 짚었다.

“우리가 가진 건 뒷면이에요.”

세린이 글자 크기를 맞추는 동안 하진이 물었다.

18개 장

수정 전후 파일 비교로 확인

29곳 수정

그중 3곳은 문장을 덜어냄

보강 기록에는 고친 곳마다 수정 이유와 참고 자료가 적혀 있어, 자료에서 찾은 내용이 원고의 어디를 바꿨는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문단은 소설 원고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완성한 책이
다음 질문의 자료가 됩니다

01

전권 퇴고

20편 구성과 주 26개

반복되는 논증과 사례를 조정

02

전자책 제작

원고 430문단과 주 26개 대조

빠지거나 바뀐 문단 없음

03

다시 등록

사유고에 다시 등록

제목 검색으로 확인

직접 읽어볼 수 있는 원고 발췌

정중함이나 간결함은 쓸모없는 요구가 아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표현을 줄이고 필요한 내용을 빨리 찾게 하는 데 중요하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그 성질을 평가하는지가 빠지면 겉모양을 고르는 말에 머물기 쉽다. 정중한 문구를 충분히 넣은 답이 고객에게 불필요한 일을 떠넘길 수도 있고, 가장 짧은 답이 고객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쓸 수도 있다.

8장 같은 말이 다른 일을 시킬 때에서 옮긴 문단입니다. 책에 나오는 업무 장면은 가상 사례입니다.

완성한 책을 현재 코퍼스에서 검색한 결과



제목으로 검색하면 이 책이 다른 자료와 함께 나옵니다. 다음 글을 쓸 때 이 책의 문단도 근거 후보로 검색됩니다.

> **실제 퇴고의 예**
> 여러 장에 반복되던 AI 답변 확인 조언을, 6장의 믿는 이유, 11장의 적용 조건, 14장의 행동 권한 문제로 나눴습니다.

저도 작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권한이 있는 자료 5~10개를 고릅니다.**
   직접 쓴 메모나 활용 가능한 자료에 제목과 출처를 붙입니다.
2. **한 가지 질문을 정합니다.**
   자료별 주장, 근거, 반론과 해당 위치를 AI로 정리하고 별도로 저장합니다.
3. **설명을 나란히 놓고 원문을 확인합니다.**
   AI의 요약과 원문, 자신의 해석을 구분해 남깁니다.
4. **짧은 글이나 기획안으로 만듭니다.**
   사용한 근거를 연결하고 정리본과 결과물을 다음 질문에 다시 활용합니다.

작은 결과에서 책까지

> 10.03 38권의 대목을 비교한 자유의지 연구 글 작성
>
> 10.13 도서 33권에서 영상 소재 105개 정리
>
> 10.20 사유고2에 의미 검색 추가
>
> 10.22 닫힌 주사위 보강판 완성, 18개 장 29곳 수정
>
> 10.25 AI를 활용하는 철학 전자책 완성, 사유고에 다시 등록

공개 범위

이 문서에는 원문 전문, 원문 이미지, 자료 파일, 개인 경로를 넣지 않았습니다. AI가 만든 항목은 원문과 대조할 후보로 다룹니다.

작업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와 독자 반응은 따로 재지 않았습니다.

활용 AI 도구

장편소설 초고는 ChatGPT로 썼고, 앱과 아카이브 프로그램은 Codex와 Claude Code로 만들었습니다. 자료 구조화와 관계 분석에는 Qwen3.8-Flash-Next, 사유고의 문맥 검색에는 BGE-M3, 사유고2와 아카이브의 의미 검색에는 EmbeddingGemma 2, 문자 인식에는 PaddleOCR을 썼습니다.